지역 소식통

고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고창군이 5월4일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21만 7254필지다. 지가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정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5월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열람기간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하고 있다. 누구나 전화와 현장 방문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품종 연구 중간평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지난 14일 계화 유채경관단지장 17명(회장 고성욱)을 대상으로 다용도 유채신품종 지역적응연구 및 신품종 이용 촉진사업 현장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상서면 통정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포장에서 진행된 이번 중간평가는 74% 올레산 고함유 품종인 유려, 흰꽃을 가진 경관용 품종인 중모7003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채종포와 단교 80~83호, 목포 127호~132호 등 계통선발된 신품종 지역적응연구포가 부안 유채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소개되었다.

유채는 동계 휴경농지를 활용하여 생력기계화가 가능한 논재배가 필수이며 내습성, 내한성에 강한 조숙품종 개발이 필요하고 어린잎은 나물용으로, 꽃은 경관과 밀월식물로, 종자는 식용유, 공업유, 바이오디젤 등으로, 유채박은 사료와 비료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질 고품질 유채유 생산 종자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경제살리는 높을고창카드"

고창군 로컬JOB센터, 전 직원 카드 구매·사용 앞장
구인·구직 상담시 할인 혜택 홍보 등 카드발급 유도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높을고창' 카드 구매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로컬JOB센터 전 직원은 높을고창 카드를 구매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상담 시 높을고창카드 구매요령과 할인 혜택 등을 홍보하면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높을고창카드는 스마트폰에서 '고창사랑페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카드 신청·발급받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충전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카드충전 시 구매금액의 10%를 추가 충전해 주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일반 종이형 상품권과 달리 소상공인은 가맹점 신청과 환전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소상공인들의 편리성을 더해주고 있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구인·구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 직후 '높을고창카드' 홍보물을 전달하고, 사용 시 혜택 등을 안내해 드리며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4월 초 현재 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수는 240명, 구인신청은 63개사며, 이 중 소상공인 구인처의 경우 가맹점 신청과 고창군 외 지역 구직자도 '높을고창카드' 신청 및 사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취업 시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있다.

고창군로컬JOB센터 김희진 센터장은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로컬JOB센터에서도 구인·구직 알선뿐만 아니라 높을고창카드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높을고창' 카드 구매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 속 퍼지는 '나눔의 손길'

부안초밥집, 매월 어려운 이웃 사랑 · 영양가득 초밥 제공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한 부안초밥집(대표 최상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지역경기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안초밥집은 부안군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지난 2018년부터 통합사례관리, 저소득층, 어르신, 다문화?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20명에게 든든한 한 끼를 채워 줄 초밥 쿠폰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60개의 도시락을 후원했다.

실제 식사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19로 경로당도 못가고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답답하고 입맛도 없었는데 직접 찾아와 끼니를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최상진 부안초밥집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집은 2020년 전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사업' 시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 청소년들 환경문제 대안활동 주목

성내청소년문화의집 '푸르미'
도비 지원받아 신문 등 제작

고창군 청소년들이 직접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신문을 제작하는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집은 2020년 전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사업' 시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 환경봉사동아리 '푸르미'는 도비 지원 등을 받아 다양한 생활 속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아리에 참여하는 20여명의 청소년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습지보호 구역 등 세계적인 환경보호 정책 속에서 고창군 자연환경의 의미 등을 배운다.

또 재활용 제품디자인 체험활동을 하고, '생물권 청정지역 고창' 신문을 제작해 인근 초·중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지역사회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내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맥류 병해충 반드시 제때 방제하세요"

정읍시농기센터 적기방제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맥류의 출수기에 따른 붉은곰팡이병 등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기방제 지도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 겨울 따듯한 날씨로 맥류 생육재생기가 전년 대비 일주일 이상 빠르고, 생육재생기 이후 2~3월 평균기온도 평년 대비 1.7℃ 높아 출수기 또한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붉은곰팡이병 등 병해충 피해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맥류의 이삭 나오는 시기인 이달 중하순에는 따뜻한 날씨와 잦은 강우로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맥류의 출수기에 따른 붉은곰팡이병 등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기방제 지도에 나서고 있다.

맥류 붉은곰팡이병은 주로 이삭에 발생하며 이삭을 갈색으로 변색시켜 곡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이삭이 여물지 않아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다.

붉은곰팡이병은 출수기부터 이삭이 여물기 전까지 강우로 인한 80% 이상의 상대습도가 3~5일간 지속되면 발생이 급속히 확산된다.

병해 발생을 예방하려면 맥류 출수기 전후로 강우가 예보되면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등 보리, 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약제를 10일 간격으로 2~3회 뿌려준다.

PLS제도 및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며,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 포장 습도를 낮게 관리해야 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맥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예방이 최선"이라며 "올해 병해충 발생이 조기에 발생하고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상 예보 및 포장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